

중기 10명 중 9명 “스마트워크 활용 효과 ‘톡톡’”

근무환경 개선·직원만족도 제고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스마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관련 의견수렴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구축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워크(Smart Work) 집에서 회사 일을 하거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이동하며 근무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사결과 △들어본 적 없음 59.5% △명칭만 들어봄 17.6%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17.3% △상세히 알고 있음 5.6% 순으로 응답했으며, 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활용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경험 없음 68.1% △경험 있음 31.9%로, 3분의 2 이상의 중소기업이 스마트워크 활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경험이 있다(31.9%)고 응답한 업체들은 스마트워크 활용 유형으로 △이동(모바일) 근무 84.4% △영상·화상회의 51.0% △재택근무 28.1% △클라우드 컴퓨팅 26.0% 순으로 응답(복수 응답)했다.

스마트워크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92.7%) 중소기업이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만족도 제고 등 생산성(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27.1%, 다소 도움 65.6%)고 응답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확실한 효과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이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활용불가 30.6% △자금부담 28.9% △새로운 업무방식에 대한 적응부담 19.3% △대면중심의 조직문

화 14.6%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 13.6% 순으로 응답했으며,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는 △자금지원 92.0% △컨설팅지원 47.2% △스마트워크 교육지원 31.9% 등을 응답했다.

자금부담, 업무특성상 활용불가 등 실행하는 어려움으로 향후 2년 내 스마트워크 활용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지만(활용 계획 △있음 44.5% △없음 55.5%), 정부·대기업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있음 54.2% △없음 45.8%로,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7% 증가했다.

활용 의향이 있다(44.5%)고 응답한 업체(134개사)들은 △이동(모바일) 근무 67.2%, △영상·화상회의 38.1%, △재택근무 26.1%, △클라우드 컴퓨팅 26.1% 순으로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복수 응답)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는 영업직의 외근과 관련된 스마트워크 활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크 도입 시 스마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인 임직원 비율은 △제조업 47.2% △비제조업 64.7%로 나타나 업무특성상 스마트워크 활용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비제조

업 대비 17.5% 낮았고, 중소기업이 부담가능한 임직원 1인당 연간 스마트워크 비용은 약 4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육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6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0년 3차 추경예산안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차원의 예산 반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구축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대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건의·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역 청년기업인 (주)청세가 미혼모들에게 세탁용 세제 500개를 전달했다. 사진은 청세 직원들.

미혼모를 위한 ‘빨래약’

도내 청년기업 ‘청세’, 세탁용 세제 500개 전달

전북지역 청년기업인 (주)청세가 미혼모들에게 세탁용 세제 500개를 전달했다.

10일 청세에 따르면 한국여성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미혼모협회 ‘아임맘’과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에 물품을 기증했다. ‘빨래약’은 열·유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 세정·탈취도 뛰어난 세탁세제다.

특히 이번 기부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진행된 ‘청춘 세탁기’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기부 수량이 추가됐다. 펀딩 및 알로 임신헤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서포터와 함께 진행된 기부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기에 청세 대표는 “빨래약의 기부를 결정한 뒤 우리 제품이 누

구에게 가장 필요로 할까 고민했다”며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분들이 생각났다”고 기부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 중 빨래약은 성분이 순해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한 아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세제로 적합하다고 판단 돼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세는 지난 2018년 얼룩제거제 ‘얼룩약’과 온 가족 세제 ‘빨래약’을 직접 개발했으며, 국내최초 100% 유틸리타스 공법을 적용한 세탁소를 오픈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윤상 기자



국산 체리 품종 개발 10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재배 중인 체리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올해 과수화상병 현재까지 312농가서 확진

전북, 익산 남산 사과배농장 망성 사과농장 등 2곳서 농진청, 방제약제 등 연구 강화 연구인력 3명 즉시 보강

정했으며, 방제대상 농가 중 79농가(40.5ha)는 매몰작업을 완료했고, 233농가(146.5ha)는 매몰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농진청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되,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 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진청은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식물방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 강화 △과수전문 농기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및 예산확보 추진 △현재 매몰 후 만 3년인 재식금지 기간을 3년째 되는 재식(복원)에 방제관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재식 허가 △대체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

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한 대상작목을 선정 및 시험사업을 통한 대체작목 육성 △방제관 확충 후 즉시 매몰 준비 시작 및 매몰명령과 동시에 매몰이 시작 등이다.

그밖에 농진청은 향후에도 오염된 나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예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천, 익산 등 신규발생 시·군과 제천과 같은 다발성 우려시군은 농진청 중심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52명을 투입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의 기 발생 시·군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미발생 시·군은 당초 계획에 의거해 8일부터 19일까지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및 방제기술개발을 위해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 및 모작 진단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을 즉시 보강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농어촌공, 수질환경 보전회 간담회 개최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10일 오전 장안저수지 인근 현장에서 2020년도 수질환경 보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욕구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시켜 수질관리 활성화를 통해 수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적기 대응하는 체계구축과 대처능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코로나19 이후 첫 신규채용 마무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 이후 첫 신규채용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건물에서 응시생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행정직과 시설기술직, 의공직, 무기계약직 등의 신규채용을 위한 첫 관문인 대규모 필기시험 과정을 완료했다.

병원은 당초 3월에 신규채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연기해오다 지난달부터 채용과정을 준비해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신규채용에서는 23명 채용에 총 530명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당일 응시생 295명이 참여해 시험을 치렀다.

/김윤상 기자

aT, 산지 온라인경매 100회 돌파 기념 농산물 반값 경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농산물 온라인경매 100회를 맞아 인기 있는 제철농산물의 반값 경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반값 경매 대상품목은 그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양파 100톤과 수박 100톤이다. 경매방법은 출하사가 제시한 예정가격을 50%로 낮춰 경매가 시작되면 구매자들이 경쟁 투찰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 신선한 산지농산물을 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경매는 출하사 제시 예정가격과 실제 경매가격

의 차액만큼 aT 사이버거래소가 보전을 해줘 구매자와 출하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식이다.

최근 농산물의 B2C형 온라인거래는 ICT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도매기반의 B2B형 거래는 플랫폼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aT는 농산물의 유통관계를 줄이고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중간유통없이 거래할 수 있는 B2B 온라인경매를 올해 2월부터 상시 운영해오고 있다. 마늘을 시작으로 양파, 수박, 감귤 등 6품목에 대해 상시경매를 실시해 6월 9일까지 100회, 519톤의 실적

을 달성했다. 온라인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출하자가 예정가격을 직접 제시해 산지에서의 ‘농산물 제값 받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PC, 영농조합법인 등 실제 aT를 통해 온라인상장을 경험한 출하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4~7%에 이르는 도매시장 거래수수료 대비 낮은 1.05%의 수수료, 예정가격 교섭권, 유통비용 절감, 출하분산 효과 등에 만족감이 높은 편이다. 중소형마트, 외식업체 등 소비자의 구매는 출하사의 수수료 및 유통비용 절감효과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경매 참여에 적극적이다.

/김윤상 기자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중소기업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전주시(팔복동)가 선정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전북중기청)과 전주시(시장 김승수)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시(팔복동) 집적지구는 공동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드는 사업비 총 28.5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3.5억원)을 정부와 전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정부가 소

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고 집적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 팔복동 등 전국에 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시(팔복동) 집적지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소공인 94개사가 집적화 되어 있으며, 공동기반시설 구축이 완료하게 되면 공용장비·시설, 공동창고,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영세 소공인이 협업을 통한 원가절감, 공동수주 및 공동생산 등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인력양성 현장 실습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9일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목)와 ‘개인정보보호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9일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목)와 ‘개인정보보호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인

신태인농협, 상호금융대출 100억원 달성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 지난 8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성일) 회의실에서 상호금융대출금 1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상호금융대출금 달성탑은 여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1천억원 대출규모를 충족한 경우 수여하는 상이다. 신태인농협은 전년 동기대비 대출금이 154억 원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 농업인을 위한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 36억원을 비롯한 서민금융지원 등으로 농촌·서민경제 발전에 인적용인 모두 헌신을 다한 성과로



신태인농협 조합장 김성주. 한편, 신태인농협은 지난 2월에는 상호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농·축협 최고의 시상제도로 할 수 있는 상호금융대상 평가(13그룹)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윤상 기자